

# 세계 반도체 4월매출 증가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월비 증가하였다. 미국반도체 공업협회(SIA)가 발표한 금년 4월의 세계반도체 매출은 156억4천만불로, 전년 동월비로는 25.1% 감소해 두 자리수의 낙폭을 지속했다. 그러나, 전월비로는 6.4% 증가해 2개월 연속 플라스성장을 기록했다.

〈세계반도체 매출(전월비)〉

(단위:10억불)

구분	'09년3월	'09년4월	비율
미주	2.58	2.6	0.5%
유럽	2.19	2.17	-0.9%
일본	2.53	2.59	2.4%
아태	7.4	8.28	11.9%
합계	14.7	15.64	6.4%

〈세계반도체 매출(전년비)〉

(단위:10억불)

구분	'08년4월	'09년4월	비율
미주	3.31	2.6	-21.6%
유럽	3.34	2.17	-35.0%
일본	4.25	2.59	-39.0%
아태	9.98	8.28	-17.0%
합계	20.88	15.64	-25.1%

전월비 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PC와 휴대전화 등 일부 시장의 수요가 호전되었으며, 그간 과도하게 축소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반도체업계의 최대 수요처인 PC의 경우 연초 예상보다 강력하게 신장되고 있다. 금년 세계 출하대수가 전년비 1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와서는 약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휴대전화의 출하도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초에 15%나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약 7% 정도 세계 휴대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낮춰본다. PC와 휴대전화는 반도체 매상의 약 6할을 점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 매출의 약 7%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시장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크게 절감된 IT비용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전시장도 위축된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세계반도체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경기회복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